



# 독서클럽 모임 보고서 - 복실복실

1주차	일시	3월 25일 16 : 00 장소명 학술정보관 그룹스터디실	
	참여 학생	클럽원 정보	참석 여부
		이예실(2053073)	O
		문정우(2131128)	O
		황형운(2191070)	O
황지영(2211118)	O		
진도	도서명: 인간 실격	진도페이지: p.1- p.27	
토론 내용	<p>이예실:인간 실격에 있는 시대적 배경에 대한 이해와 인간 실격이라는 문학이 왜 넓게 읽히는지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고 싶다. 인간 실격에서의 주인공은 사람이 사회화가 되기 전에 아주 순수한 상태에 있는 상태라고 생각한다. 마치 어렸을 때의 느꼈던 감정이 느껴진다고 생각한다.</p> <p>문정우: 인간실격이라는 문학에 대해서 그 문학이 만들어진 때의 시대적인 맥락에 어떤 연관성을 지니고 있는지에 대해 알고 싶다. 첫 번째 시기 전까지의 내용으로 생각해보면 인간 실격에서의 주인공은 사회에 잘 적응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익살이라는 가면을 쓰며 사람들과의 관계와 원만하지 못한 것을 극복하려는 것으로 보인다.</p> <p>황형운: 일단 책을 많이 읽어 보지 못해서 책을 깊게 이해하고자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보면서 인간 실격의 문학을 이해해보고 싶다. 인간실격을 첫번째 시기 까지 감상한 결과 "우울" 이라는 키워드가 떠오른다.</p> <p>황지영: 책 읽는 것을 좋아한다. 혼자 읽기 보단 동일한 책이라도, 읽는 사람들의 경험에 따라 여러 감정과 느낌이 다르기 때문에 그 점을 공유해보고 싶다. 책을 읽을 때에 책 속 인물에 집중을 하면서 읽는 경향이 있다. 인간 실격을 읽을 때 인물에 초점을 두고 읽으니 많이 우울한 느낌이 들었다. 인간 실격을 읽으면서 자신의 감정을 적나라하게 표현하는 주인공을 보며 일기장 같은 느낌이 들었다.</p> <p>김동환 교수님:독서 모임을 할 때 방향성을 가지고 우리가 얻어갈 수 있는 점이 어떤 것인지를 고찰해야 한다. 책을 읽으며 서술자에 대한 의심을 계속해야 한다. 서술자의 성향, 성격, 인식에 따라서 책에 있는 단어의 의미, 숨겨져 있는 의미를 다시 해석하고 찾아 낼 수 있다. 서술자에 따라서 책의 분위기 파악이 어려워질 수 있다.</p>		

2주차	일시	4월 8일 15 : 00 장소명 학술정보관 그룹스터디실	
	참여 학생	클럽원 정보	참석 여부
		이예실(2053073)	O
		문정우(2131128)	O
		황형운(2191070)	O
		황지영(2211118)	O
	진도	도서명: 인간 실격	진도페이지: p. 27 ~ p.72
토론 내용	<p>이예실:첫번째 수기때는 주인공에 대해 동정심이 들었으나, 두 번째 수기를 읽어가면서 주인공에 대한 감정 변화가 나타났다. 두 번째 수기 내용을 보면 주인공 요조의 행동이 점점 갈수록 이해가 가지 않는다. 주인공은 약자에게 자신의 진심을 들켰을때 수치스러워하는 모습에 불쾌감이 느껴졌다.</p> <p>문정우:디자인 오사무(작가)의 어린 시절 배경을 생각 해봤을 때 어린 시절 디자인의 재력은 가족의 고리 대금업에서 나오는 재산에 대해서 혐오를 느끼고 인간 실격의 주인공 요조에 반영되어있는것 같다. 작가 내면의 생각을 요조에 대입시킨다는 작가의 의도가 두 번째 수기에 강하게 반영되어있는것 같다. 이 책의 출판 연도에 집중해보면 1948년인데 일본의 제국주의 패망 이후 일본의 몇몇 권위주의에 심취된 사람들을 디자인 오사무가 소설에서의 자기 혐오를 가지고 비판을 하기 위해서 책을 집필했을수도 있다고 생각한다.</p> <p>황형운:첫 번째 수기보다 두 번째 수기가 읽기 쉬웠다.두번째 수기때 첫 번째 수기보다 더욱 주인공의 이기적이고 이중적인 면모를 크게 느꼈다. 두 번째 수기 내용을 본인의 관점대로 해석해보자면 주인공의 성격이 천성적으로 이상하다고 합리화한다고 생각이든다. 그래서 더 나아지고 개선하려고 하기보다는 계속해서 비관적인 느낌으로 주인공이 빠져드는 분위기를 느꼈다.</p> <p>황지영:동일하게 첫 번째 수기때의 주인공에 대해서 느끼는 감정이 불쌍하고 동정심이 들었으나, 두 번째 수기를 읽으니, 주인공이 자신의 가족들,지인들과 분리 시키는것을 원한다는 것을 느꼈음, 익살과 존경이라는 키워드를 중심으로 주인공의 감정을 생각하게 되었음. 주인공에 대한 성격의 모순점이 강하게 다가움을 느낌. 첫 번째 수기에서 독자들을 속이는 의도를 작가가 만들었다고 생각한다. “익살”이라는 소재를 이용해서 읽는 사람으로 하여금 주인공 혹은 작가를 안타까운 사람으로 여기도록 속이는 것을 의도한것 같다.</p>		

3주차	일시	5월 13일 15 : 00 학술정보관 그룹스터디실	
	참여 학생	클럽원 정보	참석 여부
		이예실(2053073)	○
		문정우(2131128)	○
		황형운(2191070)	○
		황지영(2211118)	○
진도	도서명: 인간 실격	진도페이지: 73p. ~ 132p.(마지막)	
토론 내용	 <p>[좌측부터 문정우, 이예실, 황형운, 황지영]</p> <p>(교수님의 지도 하에 소설의 사회적 배경을 통한 해석방식에 대해 알아봄.)  김동환 교수님: 문학의 세 가지 주제는 평화, 전쟁, 죽음이다. 평화는 소재가 되기 어렵지만, 전쟁과 죽음은 문학적 소재로 재미있다. 문학은 인간의 욕구와 욕망을 추구하는 경향이 있다. 작가들은 독자들이 잘 모르는 비밀스러운 것을 다룬다. 따라서 소설을 읽을 때는 작품의 세부적인 내용을 들여다보고 파헤쳐 보는 시도가 중요하다. 소설 속 주인공의 정체성은 개인, 가족, 사회, 국가 등 다양한 요소에 의해 형성된다. 주인공의 정체성은 소설의 전개에 따라 변화할 수 있다. 주인공의 정체성은 작가가 독자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 소설에서 사건과 주인공의 개념은 기본적인지만 설명하기 어려운 개념이다. 사건과 주인공을 설명할 때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두 글자를 찾아야 한다. 사건은 “변화”이고 주인공은 “변화를 겪는 사람”이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내용들은 기본적으로 매우 중요하지만 토론의 내용보다 더욱더 중요한 것은 토론을 하기 전 자기의 가치관을 분명하게 정리하고 와야한다는 것이다. 토론에서 항상 부딪치는 곳의 핵심에는 가치관의 차이가 존재하는 이유이기 때문이다.</p>		

	일시	5월 27일 15 : 00 장소명 학술정보관 그룹스터디실	
	참여 학생	클럽원 정보	참석 여부
		이예실(2053073)	0
		문정우(2131128)	0
		황형운(2191070)	0
		황지영(2211118)	0
	진도	도서명: 인간 실격	진도페이지: 소설 전반
4주차	토론 내용	 <p data-bbox="730 1093 1249 1126">[좌측부터 이예실, 문정우, 황형운, 황지영]</p> <p data-bbox="491 1176 1492 1377">이예실:인간 실격을 읽어오며 들었던 생각은 사람이 벗어나고 싶은게 있을수록 조금 더 깊이 고찰하고 생각을 하려는 시도를 하는 것 같다. 자신이 지은 죄가 존재함으로써 그것에 대한 죄책감에서 벗어나고 싶은 마음에 책 속 주인공은 친구와 함께 “죄”와 관련된 말장난을 치면서 죄책감을 이겨낼라고 하는 의도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다.</p> <p data-bbox="491 1433 1492 1680">문정우:인간 실격을 세 번째 수기까지 다 읽어보고 나서 강하게 드는 생각은 첫 번째, 두 번째 수기까지 읽었을때 무조건 주인공의 개인적 성격 문제와 전적으로 주인공의 개인적 문제가 크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계속 진행되는 우울한 줄거리와 비참한 주인공의 상황이 이어지니 약간의 애착이 생겼다. 그 시점에 드는 생각은 과연 주인공이 이렇게 우울한 것은 그 주변 환경, 부모, 친구가 주인공의 성격을 잘못 형성한 것에 더 큰 잘못이 있지 않을까?란 생각이 들었다.</p> <p data-bbox="491 1736 1492 1848">황형운: 주인공에게 잘해주는 친구(호리키)에 대한 주인공의 태도에 의문점이 들었다. 호리키는 주인공에게 잘해주고 경제적으로 도움도 주는데, 왜 주인공은 호리키를 무시하고 밀어내려고 하는지 궁금했다.</p> <p data-bbox="491 1904 1492 2105">황지영:처음 이 책을 읽을 때 교수님 말씀처럼 서술자를 믿을 수 있는가에 대한 관점에서 살펴보면 시각이 두 가지로 나뉘어 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 책의 저자인 다자이 오사무의 말을 100% 믿으면 책의 주인공이 처한 상황이 너무 딱하고 자기 파멸적으로 느껴지며 애잔한 느낌이 든다. 반면 책의 주인공이 처한 상황을 100% 믿지 않는 시점으로 바라본다면, 모순적인 인물이라고 생각이 든다.</p>	

	No.	클럽원 정보	후기 내용
활동 후기	1	이예실 (2053073)	<p>두번째 독서클럽을 경험하면서 모든 게 순조로웠던 처음과 달리 팀장으로서 힘들었던 부분이 있었지만 이렇게 잘 마무리하게 되어 기뻐다.</p> <p>첫번째 완독클럽에서 데미안을 읽을 때는 교수님도 함께 소설을 읽어가면서 특정 부분에 대해 자신의 경험이나 궁금한 부분을 추측하면서 서로 의견을 나누는 시간이 대부분이어서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고, 타인의 가치관이나 해석 방식을 공유할 수 있어서 좋았다면 이번에 김동환 교수님과 함께한 북실북실은 문학에 조예가 깊으셔서 조언을 구할 수 있어서 좋았다. 우리가 기존에 소설을 읽는 방식이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접근방식을 바꿔 새로운 시각으로 소설을 접할 수 있게 도와주셨다. 독자가 아닌, 소설 작가의 관점에서 보고, 시대상이나 책이 쓰여진 사회적 배경, 가치관이나 은유, 그 당시 소설이 쓰인 방식 등을 교수님을 통해 알게 되면서 인간실격이라는 작품을 두번째 읽은 나에게 새로운 감상을 주었다.</p> <p>처음 인간실격을 읽었을 때는 단지 우울한 한 남자의 일생을 다뤄 반면교사 삼고, 인간의 존재 가치, 우울에 대해 공감을 얻고자 쓴 일기와 같다고 느꼈다. 인간의 순수한 우울에 대해 말할 때 나의 모습이 종종 보여 요소를 동정하고 연민을 느꼈었다. 사회적 성숙이 부족하여 느끼는 당황스러움을 보여줄 때는 나의 옛날이 떠올라 얼굴이 화끈해질 정도였다. 하지만 과연 그 지문을 따라가는 것만이 정답이겠느냐고 하신 교수님에 조금 다른 시선으로 바라보았더니 요소는 완전한 타인이 되었고, 그의 행동을 통해 느끼는 모순적이고 회피적인 성향, 자아가 없이 비관적인 생각들로 인생을 살아가는 모습이 보였고 자신을 투영시킨 다자이 오사무의 일기 같았다. 끝내 인간에서 실격된 자신이 사실 가정, 친구, 사회로 나아가갈 때 겪었던 관계들이 자신에게 악재로 다가와 파멸되는 모습을 동정하고 연민을 느끼게 했지만 결국 자기 혐오와 더 나아가 국가적 제국주의의 사상이 도의에 어긋나고 수치심을 알게 하라는 뜻을 은유적으로 보여주었다.</p> <p>이번 활동이 나에게 독서하는 자세를 많이 바꿀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글을 그대로 읽고 감상을 하는 것도 좋지만 교수님이 알려주신 방식으로 앞으로 책을 바라본다면 더 많은 이야기를 이해하고 깊에 와닿을 수 있겠다는 확신이 생겼다.</p> <p>아마 2학기에는 하기 어려울지도 모르는데 하게 된다면 이런 방식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알려주고 같이 이야기 해보는 시간을 더 많이 갖고 싶다. 생각보다 1시간이 너무 짧았던 소중한 독서 경험이 되었다.</p>
	2	문정우 (2131128)	<p>인간 실격이라는 책을 접하며 책에 있는 주인공을 그대로 믿고 인식하지 말라는 교수님의 가르침이 가장 기억에 남는다. 지금까지는 책을 읽으며 작가의 의도에 대해 전혀 의심하지 않았다. 문체나 문장이 조금 달라지고 의도적으로 바뀌어도 이것이 작가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고 있다는 생각조차 하지 않았다.</p> <p>이 책은 일본 제국주의의 몰락 이후 정상적인 체제에 적응하지 못하고 과거의 제국주의에 취해있던 당시 사람들을 비판하던 책이다. 자기 혐오라는 소재를 가지고 그들을 스스로 되돌아보게 했다는 점은 문학의 힘이 강력하다는 점을 우리에게 다시 상기 시킨다. 최근 청년들에게 이 도서가 많은 공감을 얻고 있다. 상처받고 불안한 상황에 직면한 청년 세대의 모습을 잘 드러내기 때문이 아닐까 라고 생각한다. “인간 실격”의 의미를 잘 파악하고 나아가갈 때 실격되지 않은 인간으로서 살아갈 수 있을까?</p>

	No.	클럽원 정보	후기 내용
활동 후기	3	황형운 (2191070)	<p>처음에는 주인공의 행동이 이해가 가지 않아서 책의 내용이 어렵게 다가왔는데 독서클럽 사람들과 함께 의견을 나누고 교수님께 배우면서 더 흥미롭게 읽을 수 있었다.</p> <p>또 마냥 이상한 사람으로만 생각했던 주인공의 이중적인 모습이 나에게서는 없었나 생각해 보게 됐고 오히려 수기를 쓰며 반성하는 주인공이 존경스럽게도 다가왔다.</p> <p>독서클럽 덕분에 어려운 책을 재밌게 읽을 수 있었고 많이 배운거 같아 좋았습니다.</p>
	4	황지영 (2211118)	<p>이번 독서 클럽 활동을 통해서 같은 책이라도 어떤 부분에 중점을 두고 읽느냐에 따라 감상이 전적으로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몸소 경험할 수 있었다.</p> <p>처음 인간실격을 읽었을 때만 해도 나는 이 책이 다자이 오사무라는 한 개인의 불우한 인생이 담긴 일기 같다고 생각했다. 따라서 자신의 목소리를 분명히 드러낼 수 없는 불편한 환경 속에서 웃음이라는 거짓으로 자아를 가리는 오사무의 모습이 안타까웠고, 한 편으로는 동질감도 들었다.</p> <p>그러나 창작자를 완전히 믿을 수 있냐는 교수님의 조언을 바탕으로 시선을 조금 달리하여 다시 책을 읽어보니 처음과는 전혀 다른 감상을 할 수 있었다. 일기처럼 느꼈던 부분은 죄책감을 덜기 위한 철저한 위선이라고 느껴졌으며, 솔직한 생각이 엿보인다 생각했던 부분은 허위와 거짓으로 점철된 자기 모순으로 받아들여졌다. 심지어는 처음 이 책을 읽었을때 느낀 불쌍함, 안타까움의 감정이 모두 휘발되어 다자이 오사무라는 인간이 역겹게 느껴지기도 했다.</p> <p>분명 동일한 책을 읽었음에도 관점에 따라 전혀 다른 감상을 할 수 있다는 게 신기했다. 아직도 이 두 가지의 감상 중 어떤 감상이 옳은지, 어떤 관점으로 책을 읽었어야 했는지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다. 책을 읽는 것에는 정답이 없으니 아마 내가 감상한 것과 다르게 생각하는 사람도 분명 존재하리라 생각한다. 이렇게 서로 다른 감상을 나누고 소통하는 것이 독서 클럽의 목적이 아닐까?</p> <p>이번 독서 클럽을 통해 책에 쓰여진 내용을 단순히 읽는 형태의 독서가 아닌 스스로 생각하는 독서를 할 수 있게 된 것 같다. 다음 학기에도 또 독서 클럽을 해보고 싶다!</p>